

# News

## 농림수산식품부



### 농식품부 2010년도 예산 14조 6,738억 원 확정

농림수산식품부는 2010년도 소관예산(기금)의 총지출 규모가 국회 심사의결을 거쳐 14조 6,738억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가 제출한 14조 6,434억원(2009본예산 대비 71억원 증)을 국회가 심사하여 304억원 증액 조정한 규모이다.

지난해 국회 2010년도 예산심의시 농림수산식품부의 재정증가율이 높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삭감 규모는 2009년(3,801억원)에 비해 비교적 소폭(1,491억원)으로 조정하였다.

삭감된 주요내용을 보면, 쌀소득보전고정직불과 경영이양직불의 2010년도 신청면적이 예산안 편성 당시의 예상보다 감소됨에 따라 소요예산을 각각 399억원, 230억원 감액하였으며,

한미 FTA 농어업분야 직접피해보전 예산은 비준 동의가 지연되고 있는 점과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비(소득보전직불 250억원, 폐업지원 300억원)가 감액 조정되었다.

또한, 예산 편성의 기준이 되는 환율이 편성 당시보다 하향(1,230원/1\$→1,150원)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감액(211억원) 조정되었으며, 신규사업으로 초년도 사업비가 과다하다고 지적된 농식품전문투자펀드 출자금(600억원→507) 등도 일부 삭감되었다.

반면, 증액된 사업(30개 사업, 1,795억원)의 내용을 보면, 최근 쌀값 하락 등을 반영하여 쌀소득보전변동 직불금 300억원을 증액(5,651억원→5,951)하고, 농

협의 2008년산 벼 매입자금 비용 일부(55천톤, 157억원)를 지원하는 한편,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입 사업비도 늘어나고 있는 수요를 감안하여 100억원 증액하였으며(2,300억원→2,400), 일자리창출 및 계속공사의 조기 완공을 위해 새만금개발, 국가어항 등 농어업 생산기반정비사업에 615억원을 증액하였다.

또한, 농가의 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맞춤형비료 지원을 늘리고(631억원→731), 미곡종합처리장(RPC) 벼 매입자금 지원규모(9,184억원→1조)도 확대하였다. 식품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천일염, 전통·발효식품 등 식품관련 예산을 112억원 증액하였으며, 21세기 동북아 수산물류 거점 조성을 위해 감천항의 수산물 수출가공선진화 단지 건립에 100억원을 증액하였다.

그밖에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품목별 대표조직 육성(30억원→60), 저온유통체계 구축(46억원→76), 농수산물 사이버거래소 운영(24억원→30) 예산을 증액하였으며, 지속가능한 수산업 발전을 위해 친환경양식기반 구축(119억원→154), 해조류 바이오매스 활용 기술개발(10억원), 원양어업 활성화 지원(35억원→38), 수협 유류탱크 개보수 지원(16억원) 예산을 증액하고, 농림수산식품 R&D 통합정보시스템 구축(10억원) 등에 대한 지원도 반영하였다.

이와 함께 지난해 한미 FTA비준 동의와 관련하여 유보된 18개 사업 1,373억원이 비준 동의 지연으로 불용됨에 따라 대상사업비 중 농어업의 근본적 체질강화 등을 위한 9개 사업 232억원은 2010년도 집행유보에서 제외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는 “2010년도 예산·기금사업의 총지출 규모(14조 7천억원)는 전년대비 0.3%

증가에 그쳤지만, 일부 재정용자사업(1,350억원)의 이차보전 전환, 기금전전화에 따른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출연금 감소(2009:8,095억원→2010:1,200) 등을 고려할 때, 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 재정지원은 지난해보다 6.2% 높은 수준으로 국가 재정증가율(2.9%)을 크게 상회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는 농어업인의 경영에 도움이 되는 내실있는 사업비 지원을 확대하고,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의 재정조기집행계획에 맞추어 2010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사업 예산의 조기집행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설날 선물은 '최고품질의 농산물'로**  
**농촌진흥청, 「2010 명절선물 상품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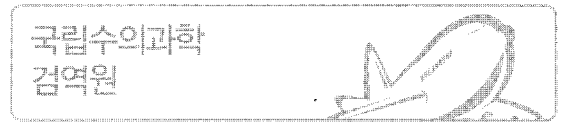


농촌진흥청(청장 김재수)은 1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대서양홀)에서 그동안 농촌진흥청의 기술지원을 받아 생산한 최고품질의 안전농산물들을 전시, 판매하는

「2010 명절선물상품전」을 개최하였다. 이번 「2010 명절선물 상품전」에서는 대한민국의 쌀이라는 브랜드로 생산되는 탐라이스와 탐라이스로 만든 떡국떡, 최고품질을 자랑하는 탐프루트(사과, 배, 단감, 밀감), 그리고 다양한 선물세트의 고품질 웰빙잡곡을 선보였다. 특히, 누에고치 생산에서 탈피해 누에를 활용한 다양한 기능성 양잠산물 제품인 실크비누, 실크화장품,

실크치약 등 생활과 밀접한 제품과 학습 및 기억력 개선효과가 탁월한 '피브로인 BF-7'도 시중 가격보다 저렴하게 전시 판매되었다.

「2010 명절선물 상품전」을 통해 최고품질의 안전농산물을 기업체, 바이어, 유통업체 및 일반 소비자들에게 우리민족 최대 명절인 설날을 맞이해 보다 저렴하게 선물을 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였다.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국제표준실험실, OECD 10위권 국가로 진입계획 발표**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2013년까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국제표준실험실 보유부문에서 「OECD 10위권 국가」로 발돋움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는 작년 소 브루셀라병 OIE 국제표준실험실을 성공적으로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으로, 2010년 뉴캐슬병, 2011년 사슴만성소모성질병, 2012년 광견병, 2013년 항생제 내성균의 순으로 매년 1개씩 총 5개 분야에 대한 국제표준실험실 지위 인정을 획득하여, OIE 국제표준실험실 보유부문에서 우리나라가 2013년까지 OECD 10위권 내로 진입할 계획이다.

2009년 12월말 기준으로 OIE 국제표준실험실 보유수에서 우리나라는 OECD 30개국 중 16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미국뎀털물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OECD 국가의 OIE 표준실험실 보유 순위 : 1위 미국·영국(36), 3위 프랑스(27) ... 10위 스위스·스페인(3개소)

※참고로 전체 OIE는 총 36개국, 11개 분야·242개 국제표준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음

# News

특히, 올해 OIE 표준실험실 지위 획득을 신청한 “뉴캐슬병”은 양계 산업의 대표적인 전염병으로 175개 OIE 회원국 중 선진 5개국만이 국제표준실험실 지위를 획득한 분야이다. 뉴캐슬병은 닭을 100% 폐사시킬 수 있는 악성전염병으로, 정부는 양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 13억 수분(약 58억원)의 예방약을 양계 농가와 부화장에 지원하고 있다.

※국내 뉴캐슬병 발생건수 : 2008년 30건, 2009년 4건  
검역원은 금년 1월 4일 OIE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1월말 또는 2월초에 OIE 생물학표준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년 5월 말 OIE 총회에서 최종적으로 인준을 받을 예정이다.

※OIE 뉴캐슬병 표준실험실 보유국가 : 미국, 영국, 독일, 이탈리아, 호주 5개국

※주요 심사평가 기준 및 인정절차 : 전문가의 전문성, 진단 경험, 국제 활동 경험, 기술교육 훈련 경험 및 지역적 사항 고려

이번에 OIE 뉴캐슬병 표준실험실 지위를 인정받게 되면,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양계질병 대표기관으로서 발돋움하게 되며, 관련 산업에 경제적 효과도 함께 가져 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OIE의 양계 질병관련 각종 현안 사안 해결에 전문가로서 참여하게 되어 있어 국제적인 영향력을 갖게 된다.

※주요 사안 : 질병진단 매뉴얼, 국제위생규약, 청정국 신청서류 검토 등

국제표준실험실은 아시아 지역 국가에 뉴캐슬병 교육훈련, 진단키트, 진단시약, 예방약(백신) 등을 지원하게 되어 국가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아시아 지역 국가에 지원된 우리나라의 우수한 진단시약, 예방약 등을 사용함으로써 우리 동물약품업계의 인지도 향상 등 수출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동물용의약품 수출물량 (2009.10 기준) : 685억원  
국제표준실험실은 OIE를 대표하여 해당질병 분야에서 국제적인 중추 역할을 수행하게 됨은 물론, 예방약 생산 등의 기초가 되는 바이러스 등 전 세계적인 생물 자원 확보경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회원국으로부터 질병 진단 의뢰를 통한 바이러스 등 유용 유전자원 확보가 가능해짐

식품의약품  
안전청



## 외식메뉴도 영양표시 확인하고 선택하세요!

### 「식품접객업 중 어린이 기호식품의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 기준」고시

아침 식사를 샌드위치(345kcal)로 대신하고, 점심식사를 햄버거 세트 메뉴(810kcal)로, 저녁 식사로 피자 2조각(628kcal)을 섭취하게 되면 어린이(9~11세 여자)가 하루에 섭취해야할 열량(필요 추정량) 1,700Kcal의 105%를 섭취하게 되는데, 앞으로, 식당의 메뉴나 업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섭취하고자 하는 제품의 열량을 미리 계산하여 하루 섭취 열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제과·제빵·아이스크림·햄버거·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영양성분 표시 및 방법 등에 관한 기준」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대상 매장과 메뉴는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100개 이상의 매장을 갖춘 33업체



10,134개 매장에서 연간 90일 이상 판매되는 제품이다. 표시해야 할 사항은 1회 제공량당 함유된 열량·당류·단백질·포화지방·나트륨 등의 함량과 해당 성분의 일일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비율이다.

- 두 종류 이상의 음식으로 구성된 세트메뉴의 경우 해당 조합의 총 열량을 표시해야 하고, 메뉴가 여러 종류의 음식으로 구성되었을 경우 열량의 범위를 표시해야 한다.

※일일영양소 기준치 : 소비자가 하루의 식사중 해당 식품이 차지하는 영양적 가치를 보다 잘 이해하고, 식품간의 영양소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식품표시에 사용하는 영양소의 평균적인 1일섭취 기준량을 말한다.

• 표시방법은 메뉴의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주변에 음식명이나 가격표시 글자 크기의 80%이상으로 열량을 표시하고 그 외 영양정보는 포스터·해당 매장의 홈페이지에 표시토록 하였다.

- 주문 배달 제품의 경우 배달시 전단지·스티커 등으로 영양성분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식약청은 식품접객업체의 영양표시 조기정착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금년 상반기까지는 계도를 통해 영양표시가 올바르게 정착되도록 하고, 하반기(6, 11월)에 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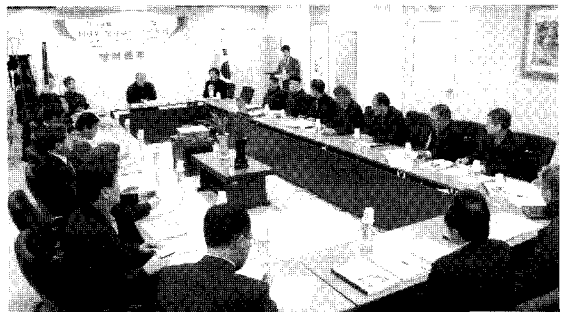
이번 기준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제·개정고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식약청은 우리 국민의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외식업체에 대해서도 자율적으로 영양표시를 하도록 시범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2009년 기관평가 및 2010년 경영혁신전략 회의 개최

‘가축위생방역지원 일류기관’ 비전 달성 위해 3S 다짐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는 지난 12월 29일(화) 14:00 도본부장·사무국장 등 소속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9년도 기관평가 및 2010년 경영혁신전략회의”를 개최했다.

배상호 본부장은 인사말에서 “금년 한해에도 전 임·직원이 근면·성실하게 맡은바 책임과 임무를 완수함으로써 생산성과 고객만족도가 향상되었다.”며, “경인년 새해에도 양축농가와 국민을 위하여 가축질병 청정화와 안전축산물 공급에 앞장서는 봉사자로 주어진 업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인사말에 이어 산하기관평가 발표 및 우수기관 표상과 우수직원에 대한 표창을 실시하였다.

2009년 기관평가 최우수기관에는 전북도본부가 영예를 안았으며, 생산성향상부문에는 충남도본부가, 고객감동경영부문에는 전남도본부가, 고품질·실시간 질병예찰부문에는 경북도본부가 각각 수상하였다. 또한 방역본부는 농림수산식품산업 발전에 이바



# News

지한 우수직원 4명에게 농림수산물부장관상을, 방역·위생·검역사업 등 방역본부 발전에 기여한 14명에게 본부장상을 수여하였으며, 불우직원·이웃에 위로금을 전달했다.

이어 2010년 경영혁신전략 및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과 목표달성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방역본부는 내년도 비전을 “가축위생방역지원 일류기관”으로 정하고, 비전달성을 위해서 빠르고(Speed), 정확하며(Sure), 특별한(Special)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경영목표를 사업의 고품질화, 고객 섬김, 경영선진화로 삼고 예방위주의 사업활동과 고객이 감동하는 서비스를 실현함과 동시에 경영효율화를 통한 조직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2010년 전략사업은 ▲가축전염병 예방 및 조기근절 사업 집중 추진 ▲농장방역실태점검사업 효율성 제고 ▲초동방역팀 현장 방역업무 수행능력 제고 ▲수입축산물 현물검사 업무표준화 및 유통관리시스템 구축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업무수입기반 확충 ▲방역과 위생을 연계한 기술지도 역량 강화 ▲양축농가 가축질병 맞춤형 홍보·교육 ▲수요자 중심의 고객감동 행정 운영 ▲자율실천 윤리문화 생활화 ▲조직·인력관리 및 사업지원 효율화 등이다.



## 농협, 폭설피해지역 일손돕기 실시

기록적인 폭설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조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농협이 6일(수) 폭설피해지역 일손돕기에 나섰다.

이번에 일손돕기를 실시할 지역은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일산리 마을로 이번 폭설로 비닐하우스가 붕괴

는 되는 등의 피해를 입은 곳이다.

용인 일산리 마을에서 농협 직원들은 농로 제설작업, 비닐하우스 동간 눈치우기 등 폭설 피해 농업시설에 대한 긴급 복구 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밖에도 농협은 이번 폭설 피해 대응을 위해 피해지역 전사무소가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재해대책상황실 운영, 피해 농가 방문 및 지원 등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 2010년 찾아가는 무료 HACCP 기술상담 운영 계획 알림

HACCP 기준원은 축산물HACCP 지정, 운영상의 의문점, 기준서 작성 및 개정, 기타 운영 기록 등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HACCP운영을 활성화하고자 「찾아가는 무료 HACCP 기술상담」을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물HACCP 미지정(추진예정) 및 기지정업체(식육가공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체, 축산물운반업체사료공장, 농장)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상담은 ▲축산물가공처리법 및 하위법령 등 개정사항 설명, ▲도면(Lay-out) 검토, ▲기준서 작성 및 지침(표준)서 작성, 양식(일지) 운영상담, ▲교육 및 HACCP운영에 필요한 일반적

회차	날짜	대상지역	실시(예정)장소
1	3.18(목)	충청남·북도 (대전포함)	대전지역
2	5.19(수)	강원도	춘천지역
3	6.24(목)	전라남·북도	전주지역
4	8.25(수)	제주도	제주시
5	9.28(화)	경상남·북도 (부산, 대구, 울산포함)	창원지역
6	11.25(목)	경기, 인천	의정부지역

인 사항 설명, ▲심사절차 및 그 외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상담을 진행한다. 첫 번째 상담은 오는 3월 충청남·북도에서 실시될 예정이며, 1:1 상담을 통해 내담자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것임을 밝혔다.

상담 신청은 각 회차별 교육일 한 달 전부터 접수가 가능하며, '축산물HACCP 기술 상담 신청서' 작성 후 팩스, 우편 또는 전화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기술상담센터(031-390-5252~5253) 또는 교육팀(031-390-5216~5218)으로 문의하기 바란다.



**“녹색식생활, 이렇게 실천해요”**

**aT, 녹색식생활 수기 공모전 시상식 개최**

aT(농수산물유통공사, 사장 윤장배)는 29일 양재동 aT센터에서 '녹색식생활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aT와 농림수산식품부는 우리나라의 전통식생활을 계승하고 환경친화적인 식생활을 추구하는 '녹색식생활' 확산을 위해 11월 23일부터 12월 18일까지 4주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천사례를 공모한 결과, 총 393건의 다양한 작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대상의 영예는 주부 김현실 씨(서울)의 '오늘은 뭐 해 먹지?'가 차지했다. 대상작은 일주일 식단 짜기를 생활화함으로써 가족건강을 유지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법까지 제시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금상은 정정숙 씨(광주)의 '내 모든 정성과 사랑을 다하여'와 이재숙 씨(경기 안양)의 '호박김치'가 차지했다. aT는 수상작 21편을 책으로 엮어 다음 달 중으로 전국 도서관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바른 식생활 확립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 환경보전, 농어업활성화를 위해 지난 5월 '식생활교육 지원법'을 제정·공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aT는 현재 식생활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녹색식생활 지침을 개발 중에 있다.

윤장배 aT 사장은 “잘못된 식습관으로 인해 각종 질병발생, 환경파괴 등 사회·경제적 손실이 증가하고 있어 건강한 국민 식생활 확립이 매우 시급하다”면서 “올바른 식생활교육을 위해 이번 수기공모전과 같은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